

“속세의 때 벗으니 ‘사람 향기’ 나네요”



지난 4월 해남 미향사의 출가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참가자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 (미향사 제공)

미향사 출가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참가자들 묵언·午後不食·하루 6시간 참선

“머리 깎고 산에서 도나 뒤였으면...”하는 푸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만한 생각이다. 그러나 직장, 가정, 돈, 학업 등 눈 앞의 현실을 출가(出家)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잠깐이나마 속세를 잊고 참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해남 미향사(주지 금강 스님)가 일반인들을 위한 7박8일 간의 출가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를 운영하는 것.

주말이나 휴일 동안 사찰에 머물면서 조용하게 보내는 일반적 개념의 템플 스테이와는 다르다. 사찰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스스로 참선을 수행하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다. 삭발하지 않은 수도승. 머리카락 깎지 않았지만 ‘학승(學僧)’들의 생활과 거의 흡사하다.

미향사에 도착한 뒤 수복과 비슷한 회색빛의 생활 한복을 지급받는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산행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아침식사는 죽으로 대신하고, 하루 6시간의 참선은 필수다.

큰 스님과 주고 받는 수행문답 시간을 제외하고는 참가 기간 동안 묵언(默言) 수행이 기본이다. 게다가 오후불식(午後不食), 즉 저녁 식사는 생략이다. 생강차와 같은 간단한 음료수만 섭취할 수 있다.

3일 정도 오후불식을 행하면 허기가 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지만, 4일 째 접어들면서 참가자들은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큰 스님들로부터 듣는 ‘수행론(修行論)’, ‘좌선의(坐禪義)’, ‘육조단경(六祖壇經)’, ‘화두간택(話頭揀擇)’ 등의 법문은 선(禪)의 세계에 제대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준다.

참가자들은 연중 사용 가능한 휴가를 모두 ‘몰인’하는 직장인, 일주일치 매상의 출혈을 감수하고 ‘큰 밥’ 먹은 자영업자, 인생 수업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결정한 학생 등 떠밀리다 양하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수도승같은 생활’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었다.

더러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등 떠밀리 오는 이들도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돌아가는 길에는 누구보다 함박웃음을 짓는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뭔가 꼭 차는 충만함을 온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참사람의 향기’ 참가자 조연대씨는 소감문에 “향상 일에 밀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놀랍게 변한 내 모습에 스스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고 썼다.

미향사 종무원 이지수(43) 보살은 “지난 2005년부터 매월 셋째주 ‘참사람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행을 마친 참가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며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공해에서 벗어나 금연, 금주, 묵언 등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차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14세에서 65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 수가 정원을 넘을 경우 신청서 내용과 접수 일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참가비는 35만원. 문의 061-533-352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여연 스님

은근과 끈기의 꽃

눈부신 신록의 계절이다. 짙은 초록 숲들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수니(나무 잎 물결) 꽃향기, 나뭇잎 스킨은 소리에 동지 떠나는 새들의 비상. 6월의 자연은 은혜롭다. 충만 그 자체다. 하나 가득 차 있을 때 농치게 되는 사물들이 많다.

‘내려 갈 때, 보았네 올라 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은 어느 관화가의 시(詩)에서 깊은 삶의 여정을 읽는다. 산을 오르는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과 같은 길이라 할 수 있다. 정상을 향하여 높은 산을 오를 때 흔히 우리는 허둥바둥 좌우 돌아 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숲에서 일어나는 사물들이 피어나는 자연의 하모니, 소중한 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나그네 길들도 마찬가지다. 대개 개인이 삶을 떠려다 보면 정상을 향하여 죽어라 뽀뽀잡니다가 깊고 소중한 사랑,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존재의 영혼을 거의 잃어버리게 된다.

가득한 성공 속에서 텅빈, 그야말로 내용 없는 허망함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설령 올라 갈 때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 갈 때라도 맛보고 진정으로 느껴야 되는 일이다. 서서히 여유를 갖고 생의 노정을 살피며 가야할 참된 삶. 그곳에 진솔한 꽃향기가 배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더 크게 국가의 정체성도 이와 같은 일이다. GNP 3만불 시대, GDP 세계 10위를 기록하느라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 치며 살기 죽기로 달려왔는가.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 버렸는가 아야 얼었던 것 보다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절절히 물어내던 인성,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깊은 세월의 이끼 낀 전통의 문화 전반까지. 예절, 남을 위한 배려, 배품, 사소한 것에 감사함, 질서 이 모든 것들의 통합. 바로 은근과 끈기의 꽃을 들여다 볼 때이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위’ 결성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1주일 단식기도를 했던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평화의 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제주교구 김향훈 총대리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신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군사기지 제주유치의 부당성을 자료화해서 배포, 교육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평화의 섬 특위’는 개인교 목회자와 신도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필요할 경우 천주교 전국 각 교구와 연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위’는 김 신부 등 천주교 사제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도시민·농민 함께 풍년 기원 미사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미사가 올려진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곡성군 곡성읍 군민회관에서 ‘2007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풍년기원행사’가 열린다.

도시와 농촌의 가톨릭 신자는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도시락과 미사 준비물을 챙겨오면 된다. 미사 후에는 기념식과 마당극 ‘밭살을 엮어라’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373-6185.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언론보도, 불교가 기독교 보다 3.8배 더 많았다

한국교회연론회, 9개 중앙지 분석

종교 간 언론보도의 비중을 비교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회장 박봉상 목사)에 따르면 중앙일간지의 종교 관련 기사 빈도수와 크기 등을 분석한 결과 불교 관련 보도가 천주교·개신교 관련 보도보다 3.8배 더 많았다.

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9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시기로

정한 이유는 4월8일(부활절), 5월24일(석가탄신일) 등 각 종교의 큰 명절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신문들은 불교 관련 기사를 91건 보도했으며 할애한 지면은 4만8천199cm이었다. 반면, 개신교 관련 기사는 14건에 4천354cm, 천주교 관련 기사는 10건에 2천842cm를 할애했다.

언론사 별로 보면, 개신교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순이었고, 천주교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순이었다. 불교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한 곳은 문화일보였으며, 그 뒤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이었다.

한국교회연론회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종교 절기에 우호적 성향 짙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종교의 중요 절기를 부각시키는 보도는 바람직하나, 특정 종교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언론이 종교 관련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단순 행사 보도나 인물 인터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사회화 순기능을 소개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진지한 고민을 결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보점 옆, 대인동 소정사거리내)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대)383-5221 헬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건물투자

- 보종금 36억 원에 3,000만원 (지역최고상권) 용차 12억 매가 80억 (토지와 교환가능)
- 동림주공입구 대 200평 건/725평(신축) 용차8억 보종금 10억 원 1,500만원에 매가 35억
- 보종금 3억 원에 매가 1,500만원 매가 19억 (상무2지구)
- 보종금 7억 원에 2,200만원 매가 30억 (상무지구)
- 보종금 3억 원에 매가 700만원 매가 16억 (상무2지구)

● 땅투자 (상무지구)

- 850평 평당 900만원
- 500평 평당 820만원
- 129평 평당 650만원 (상무지구)
- 100평 평당 800만원 (사정역입구)
- 136평 평당 850만원 (상무지구)

● 모텔매매

- 상무지구 개성 34개 용차 9억 매가 12억
- 상무지구 개성 35개 용차 16억 매가 25억

● 상가사임(상무지구)

- 상가 90평 보5천만원 월세 650만원 매가 10억
- 차량동 3층 69평 평당390만원

● 임야(농장)

- 광산구 동산동 2만2천평 평당 11만원 (잔디밭관리사있음)

● 공장창고 및 기타

- 광종동 대지 155평 (20M도로점) 평당 650만원 매가 10억
- 장동동 1,140평 주거지역 평당39만원 (부자용)
- 서구 자연녹지(대지) 3,000평 평당160만원
- 서구 마곡동 900평 평당150만원
- 동림동 빛고을로부처 1,300평 평당350만원

★양도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정우부동산

☎(대)675-4788-7 헬 01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건물구매

- 대지 260평 건평 약300평 지하 1층 지상3층 매매가 9억8천 보종금 1억2천만원 월세500만원 용차 4억원

토지매매

- 주원동 주원프라자 APT 및 대형 병원 입구 15M×9M도로코너 대지150평 평당가 320만원 약국이나 슈퍼매점 적합
- 외곽도로변 대지84평 건평약 3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8억 용차 3억 보종금1억2천 원420만원
- 봉선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지 약1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 남구 봉선동 무등2차 정문부근 대지 약200평 2차선집 매매가 평당 400만원
- 월산동 외곽도로 대지 약160평 35m×10m도로코너 평당 450만원
- 남구 양파동 1중주거지역 약 500평 평당55만원 진입로유 평당 60만원 진입로 있음
- 무진상가아파트 부근 대지 약 300평 평당가 250만원

임야매매

- 남구 도곡동 임야 21000평 매매가 6억 신실예정 도로인접 (담양고서 임야(대부분 전으로 이용중)) 9700평 평당65천원

첨단월세공인중개사

☎(대)972-4585 헬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 급매매 ★

- 첨단 인근 비어둔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 대주택, 물류창고, 복식 실버시설
-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 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중심 상업매매

- 장부지방사 2008년 개칭지 약 360평
-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 비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구매

-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원495만 매5억3천만
-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원480만 매4억8천만
-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원180만 매4억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 보훈병원 부영아파트 앞 250평
- 신창동 재방도로부근 1080평
- 신창동 보건대 마을부근 510평
-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 북구 지아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점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국민공인중개사

헬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동남문역 2층)

건물

- 9억 8천 빌딩 대100평 건140평 보종금 2억6천 원4500만원
- 7억 9천 빌딩 구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사봉동 대270평 건287평 보1억9천 원4500만원
- 6억 5천 원룸매매 지산동대88평 건200평 보종금1억5천 원4500만원
- 13억 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면 대110평 건200평 보3억3천 원9000만
- 12억 3천 8칸 빌딩부지 30×6m코너 보종금 1억 원4500만원 포함
-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평, 건310평 보종금 2억 원4800만원
- 17억 5천 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종금 1억 5천 원7500만원 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평 건890평 보종금 5억 원18000만원
- 47억 빌딩 대600평 건1000평 보10억 원세3000만원 용차20억 포함
- 120억 공장부지 광안지역 12,000평 연세 공장 운영중
- 125억 빌딩 구매 대675평 평당 6500원

주유소 전문중개

- 9억 주유소 구매 대300평 35m도로변
- 11억 5천 시외 주유소 기사사단 카센터 포함 2000평 장사원
- 13억 5천 시내 주유소 구매 대400평 일매출 800만~900만원
- LPG충전소, 주유소부지 광안구 35×10m코너, 평당2000원 신개발지역

병원부지 전문중개

- 360평 평당 750만원
- 210평 평당 900만원
- 550평 평당 6500원

땅

- 정비 공점부지 600평 상업지역 35m 도로점 평당 270만원
- 수원지구 상업지역 240평 평당3650만 대로변
- 성암동 310평 상업지역 20m도로점 평당390만원
- 골프연습장 부지 8,000평 자연녹지 부지 평당 500만원
- 팬선부지 심진강 5,000평 전원주택부지, 평당, 산수원부지 평당 700원
- 제1중주거지역 1,000평 평당1000만원 20m도로점
- 담양 임야 15만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임야 7000평 담양 평당17천 원 건립로 있음 경사도 15°
- 오피스텔부지 300평 전대후면에서 6~7번 도로 평당1750원
-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평 남양 경사도 15도만 전로 있음 상생물연구소에서 10분거리 평당1만 원
- 23억 종교시설 신축임 빌터부지 12만평 건물 500평
- 전원주택지 고가500평 평당평면 700평

공장 구매

- 거화동에서 10분 6947천 대지1,400평 건물 500평
- A3000세대 정문 10억 빌딩 구매 대90 3250 보종금 1억4,000 원 700만원

이장동 고급전원주택

- 대300평 건 9500평 강남향 약3억

시외 고급주택

- 시외 7억 5천 고급주택 대지1,200평 건100평 고급주택, 고급 조경포함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헬 016-602-9937
(광주 첨단지구, 국민은행건물 2층)

상업용건물

- 매가: 80억 용12억, 보35억 원세 3,000만원 (최고상권)
- 매가: 30억 용9억, 보4억 원세 1,700만원 (첨단지)
- 매가: 22억 용6.5억, 보5억 원세 1,200만원 (양산동)
- 매가: 15억 용6.5억, 보3.5억 원세 700만원 (상촌동)
- 매가: 4억 2천 용2억 6천 (신가지구, 사당, 사무실가능)

토지매매

- 광산구 운봉동 250평×200만원 (2,600세대APT인접, 상가점포)
- 광산구 운봉동 3중 일반주거지역 140평×300만원 (현 조합사건물 캐넌타운연중)
- 북구 지아동(동) 908평×35만원
- 상업지(첨단) 420평×450만원
- 상업지(첨단) 100평×300만원
- 송정동 대지 32평×220만원 (근생동,가성대,왕복4차선점)

양산동 상업용지

- (은형 입주보종금 18억 보장)

★매매물건 접수합니다★

경쟁하는 동료·선후배 중개사님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최고의 A급 상가를 찾고 계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중개사들간의 협력은 성공의 필수요소이고, 우리의 성공은 모두 귀하께임을 중개사님들 덕분입니다. 아래의 물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한 법령 제23조에 의거한 전속중개계약물건입니다. 물건은 소개해주신 이미 책정된 임대인에서 받게된 저 수수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대후문 70평 노래방(도유미 없는 청정지역)

- 보종금9,000/월180/시월-관리금12,000/월21,000
-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음 11개, 소방안전설치)
- 영업시간 19시~오전11시~(세박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 광주 대학성 중 최고급 유동인구의 상권 밀집지역
- 월수익 900만원이상,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노래방 요약 손익계산(최근 3개월) (단위:천원)

매출	분류	50만원	60만원	70만원
월 영업액	30일	30일	30일	30일
월 매출 합계		1,500	1,800	2,100
인건비	알바(3명)	200	200	200
	점주인건비	150	150	150
광고비		30	30	30
영업의 비용		100	100	100
전기료 및 공과금	1개월	50	50	50
임대료	1개월	180	180	180
유류수 및 물기	매출의 약15%	225	270	315
월 지출 합계		935	980	1,025
순이익금		565	820	1,075
점주인건비 포함 이익금		715만원	970만원	1225만원

전대후문 대로변 바로 건너편 1층 50평(대지16평)
최고형상권(이부,인경성/키푸드/이동통신/뷰티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최적지)
●보종금10,000/월700/시월-관리금 25,000/월35,000
●보종금5,000/월70/시월-관리금 6,000/월11,000
●보종금5,000/월70/시월-관리금 6,000/월11,000
전대후문 최고 타는 알매 상권 1층 45평 소주방
●보종금5,000/월220/시월-관리금 12,000/월15,000
●그외 업종별, 금액별 다수 물건 확보

상가 임대, 매수, 매매,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 仲 介 士 事 務 所

부동산은 공신물이 아니다. 내내 의심대는 최소 3개월간은 연락주시시오.
업종별 프랜차이즈 점포개발형 상가문의 환영
항상 도우미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재개발 사거리)